

새 차도 친환경이 대세 중고차도



지난달 국내 친환경차는 전년보다 57% 증가한 2만6983대 팔렸으며, 수입 친환경차 신규 등록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왼쪽부터 기아 'EV6'와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A'.



자동차시장에서 친환경이 대세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50%를 뛰어넘으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수입차 역시 친환경차 판매가 대폭 늘었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업체가 전용전기차를 필두로 친환경차 신차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고, 충전인프라가 확대되면 매년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차를 살 때 중고차 판매까지 고려해 내연기관을 선택하기보다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업체의 내수 판매는 15만169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친환경차는 내수 판매가 56.5% 증가한 2만6983대를 기록했고, 수출 또한 36.5% 증가한 2만7607대로 각각 5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내수 판매 2만6983대 전년 동기대비 57% '경증' 중고차 시장 검색량 29% 증가 ...인프라 확충에 수요 늘 듯

친환경차 수출 대수 비중은 전체 19.0%로, 수출 금액은 하이브리드차가 큰 폭(221.7%)으로 증가해 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친환경차 인기에 수입차를 살 때도 전기차 등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5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2만4080대로 집계됐다.

연료별로 보면 같은 기간 가솔린이 1만1677대로 12.2%가 줄었고, 디젤은 3105대로 무려 51.5%나 감소했다. 이와 달리 하이브리드 모델은 6695대가 판매되면서 전년 대비 127.8%가 급증했고, 전기차도 560대로 156.9%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43대가 팔린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무려 389.9% 증가하는 등 수입차 모델에서도

친환경차 판매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직영중고차기업 '케이카'에 따르면 올해 1-5월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친환경차 검색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29% 증가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검색량은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각각 7000여건 수준이었던 반면, 올해 1분기(1-3월)에는 9000여건을 뛰어 넘었다. 또 올 2분기(4-6월)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최근 1만여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친환경차 우대 정책에 따라 각종 혜택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데다, 국내 자동차업체를 비롯해 수입업체까지 전용전기차 등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더 뉴 EQA'를 7월 국내에 출시하면서 판매가격을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6000만원 미만으로 책정,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다. 테슬라 역시 모델Y 최저 트림 가격을 5999만원으로 맞춰 출시하기도 했다.

일본 브랜드 역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친환경차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렉서스는 지난 3월 플래그십 모델 '렉서스 New LS' 출시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했다. 토요타 역시 지난 4월 하이브리드 미니밴 신형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출시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했다. 덕분에 일본차 브랜드는 지난달 판매가 전년 대비 21.7% 증가하며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밖에 국내에서는 현대차의 첫 전용전기차 '아이오닉 5'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 있고, 기아도 곧 첫 전용전기차 'EV6'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친환경차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프리우스 매력 속으로 토요타, 온라인 경품 이벤트

토요타코리아는 다음달 19일까지 퀴즈와 사진 응모를 통해 프리우스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프리우스 리그'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리우스 리그' 온라인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리우스 매력 채우기 리그' 퀴즈 이벤트와 프리우스 고객 대상의 '프리우스 매력 인증 리그' 사진 응모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는 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프리우스의 CM송 '프리우스' (Free Us) 노래를 들은 후 퀴즈를 맞추는 이벤트로, 참여자 중 총 80명을 추첨해 치킨이나 커피 등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사진 응모 이벤트인 '프리우스 매력 인증 리그'는 프리우스와 함께한 매력적인 사진을 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자신이 올린 사진을 일러스트한 작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강대한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프리우스와 함께 다채로운 자동차 라이프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전동화 차량의 선구자인 프리우스의 매력을 만나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당 이벤트는 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 오는 30일까지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실시 중인 '취향저격 시승회'를 통해 프리우스를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돌풍' 제네시스 GV80 6인승 추가

제네시스의 첫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의 6인승 모델(사진)이 새롭게 출시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올해 3분기(7-9월) GV80의 첫 연식 변경 모델인 2022년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기존 5인승과 7인승 모델에 6인승 모델 추가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6인승 모델은 2열 좌석이 분리돼 기존 5-7인승 모델보다 뒷좌석 탑승자의 승차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 6인승 모델도 2열이 분리된 독립 시트(좌석)가 적용될 예정이다. 2열 좌석에서 3열로의 이동이 편해질 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더 고급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커스터마이징 항목을 추가하고, 상품성을 개선한 2022년형을 출시할 예정이며, 가격과 세부 사양 등은 출시 때 공개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시스의 고급화 전략에 맞춰 6인승 모델 출시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GV80은 제네시스가 지난해 1월 처음 출시한 SUV다. 지난해 국내에서만 3만4217대가 판매됐고,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9477대가 판매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판매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매달 월간 판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GV80은 미국에서 3월 1636대, 4월 1895대, 5월 2037대가 판매됐다.

올해 2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주행 중 전복 사고를 냈지만, 내부가 거의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확 달라진' 아반떼 잘 나가네

출시 1년만에 10만대 돌파...승용차 누적 판매 3위

현대차 신형 아반떼가 출시 1년만에 국내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21일 현대차 실적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출시된 신형 아반떼는 올해 4월까지 하이브리드 포함 10만4937대, 5월까지 11만1634대가 판매됐다.

출시 첫 해인 지난해에만 7만7385대가 판매됐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만4249대가 팔리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하이브리드차는 6230대가 판매돼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신형 아반떼는 국내 승용차 모델 중에서 올해 누적 판매량이 그랜저(4만3347대), 카니발(3만9605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세단 중에서는 그랜저 다음으로 많다.

지난달 판매량은 그랜저(7802대), 카니발(7219대), 쏘렌토(6883대)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5년만에 출시된 7세대 아반떼는 완전히 달라진 외관 디자인과 개선된 안전·편의사항을 적용했음



에도 1531만원부터의 합리적 가격을 유지해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모았다.

사건계약 첫날 계약 대수는 1만58대로 6세대 아반떼(1149대)의 약 9배를 기록했다.

또 아반떼의 판매량은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IR사이트에 따르면 아반떼의 미국 현지 판매는 지난달까지 5만9272대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4만889대)에 비해 45.0% 증가했다. /연합뉴스

XM3 모여 세차합시다 르노삼성차, 30일부터 이벤트

르노삼성차는 2022년형 XM3 출시를 기념해 XM3 차주가 함께 모여 세차를 즐기는 'XM3 워시 나이트' (Wash Night) 이벤트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XM3 차주 120명을 초청해 오는 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전국 10개 지역(용인·서울·일산·남양주·안성·강릉·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XM3 차주는 르노삼성 차량 관리 모바일 앱 'MY르노삼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세차비와 간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차에 필요한 프리미엄 방수 왁스까지 기증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과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

모두 이뤄지도록
국민연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뤄지다